

책 소개하기

이야기의 흐름이 어떠한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단계를 통해 책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인상적인 장면을 생각해보고,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책의 주제와 현실에서의 적용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책 소개하기

책 제목: 달과 죽은 강화미
작은이: 강화미로
출판사: 한국수다이너
발행날: 17년 26일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 혹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책의 줄거리를 정리해 봅시다.
한나루가 나쁜에게 암탉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엄지
라는 막내 딸이 매우 예뻤습니다. 그 날 엄지가 부드
아름다움을 높은 예뻐졌다. 지으 자더 깊은 아름다운 도끼녀
방에 드러나자 그 옆에 비단 아지도 함께 걸어온 것입니다.
엄지의 허리에 흰 깃털이 달려 있었지만 그 옆에는 깃털이
아니에 머리가 까마득았던 장수는 한 번도 미안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장화를 끌고 와서 그 옆에 걸어온 것입니다. 장수는 임금님을 도운 엄지
에게 친절을 하거나 되었을 것이다.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고, 누구에게 왜 소개하고 싶은지 써봅시다.
도끼녀는 방 송에 흘러온 유선 개와 거위 네 마리와
는 어지 한 마리, 그리고 단지 한 마리를 떠는 한 마리
인상기입니다. 온나라 한 아울과 도깨비 한 아울 모두 너무
많아 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애들도 예전에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높다. 이유는 놓았는 키가 작았지만 똑똑해서 모두를

한 기 때문이다.

KIM SEJUN
2 HUMILITY

동화 분석하고 적용하기

동화를 읽고 구성요소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는 글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함을 통해 스토리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테스트를 읽고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 '송아지가 둘러 준 옹달리 구멍'에서 두 명의 주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들을 설명하고, 둘 사이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이와 비슷한 일이 '나'에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쓰세요.

조건: 문제에 주어진 3가지의 필수 요소를 넣고 한 편의 글을 작성하세요.

송아지가 둘러 준 옹달리 구멍의 주요 인물은 엄지와 구만이입니다. 엄지의 성격은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엄지가 자기네 엄마 소가 송아지를 먼저 낳지 못하자 화가 나서 옹달리 구멍을 막았습니다. 둘 사이 갈등 원인은 엄마 소가 송아지를 먼저 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지네 엄마 소가 송아지를 먼저 낳자 구만이가 화가 나서 둘이 다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가 만약 구만이라면 엄지가 자랑할 때 “엄지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랑을 하면 친구가 속상해 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LEE HYUNJIN
3 HUMILITY

소설 개요짜기

소설을 쓰기 전에 개요를 짜는 부분입니다. 인물을 역할에 따라 설정하고, 배경을 설정한 후에, 인물 관계도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략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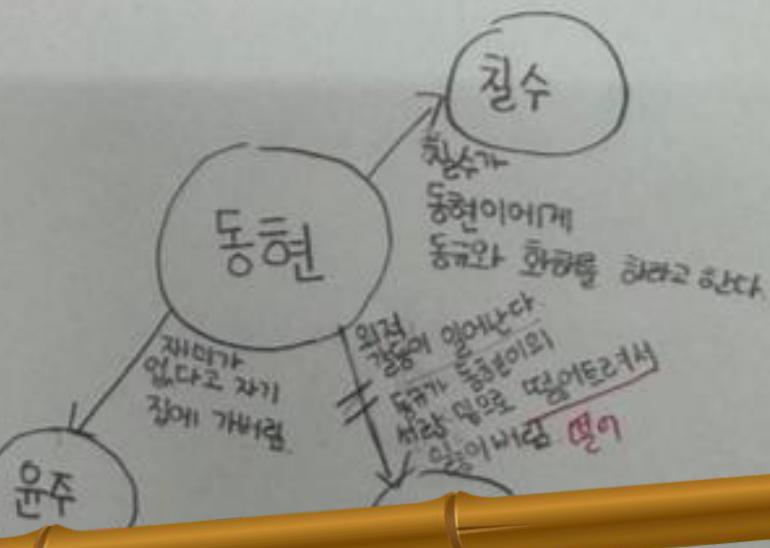
2. 배경을 설정해 보세요. (2 점)

조건 :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설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공간적 배경 - 교실 안, 동현이의 집
이유 - 동규, 동현, 윤주가 교실안에서 공개놀이를 하고, 동현이의 집에서 동규, 동현이가 외적갈등을 하기 때문이다.
- 시간적 배경 - 쉬는 시간, 학교 끝난 후 어떤 내용인가?
이유 - 공기를 할 시간은 쉬는 시간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 끝나고 동현이네 집에 가기 때문이다.

3. 인물 관계도를 통한 갈등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4 점)

조건 :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고, 관계도 사이에 갈등 구조와 사건을 설정해 보세요.



WOO JUWON
4 HUMILITY

햇비

햇 비

아씨처럼 나린다

툭탁 툑탁 햇비

맞아주자 다같이

옥수솟대처럼 크게

단자 옛자 자라게

해님이 나왔다

나보고 기뻐한다

하늘 다리 놓였네

포근포근 무지개

노래하자 신나게

친구들아 모두 모여라

다같이 춤을 추자 신나게

해님이 나왔다

즐거워 실실 웃는다

BAE SO YUL
5 RESPECT

소설 ‘히틀러의 딸’을 읽고 난 후, 나의 고찰

소설 ‘히틀러의 딸’을 읽고 난 후, 나의 고찰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지, 그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까?

우리는 언제나 옳은 선택, 알맞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어쩌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 역시도 당시에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의 평범한 어느 한 가정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 많은 오스트리아보다 게르만인들만 있는 독일에 충성을 바쳤다. 그러므로 당시에 히틀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없고 게르만인들만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번 계엄령선포 역시 그 중 하나이다. 누군가는 윤 대통령의 선택이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선택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볼 수는 있다. ‘이 일이나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하고 말이다. 이는 우리가 나 자신 그리고 남을 생각해 보다 나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박서윤
Seoyoon Park
Grade 6H Korean Class

PARK SEOYOON
6 HUMILITY

구덩이를 읽고

구덩이를 읽고

루이스 새커(Louis Sachar)의 소설 구덩이(Holes)는 억울하게 초록호수 캠프에 보내진 소년 스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소설은 캠프에서의 가혹한 노동과 권력의 불공정한 행사를 보여주면서, 권리와 정의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초록호수 캠프에서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며, 그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캠프의 규칙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 아이들은 매일 구덩이를 파야 하며, 소장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은 소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캠프의 권리 구조를 더욱 불공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스탠리가 구덩이를 파던 중 작은 물고기 화석을 발견하고 이를 펜댄스키 선생님에게 보여주며 하루를 쉬어도 되냐고 묻지만, 선생님은 "소장님은 화석에는 관심이 없어"라고 답한다(p.77). 이는 캠프의 보상 체계가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엑스레이가 스탠리 대신 소장에게 키스하는 케이트 바로우의 금색 립스틱 뚜껑을 보여주었을 때는, 샤워 시간 연장과 깨끗한 옷을 받는 등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다(p.91~98). 이러한 차별적인 보상 체계는 소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다.

초록호수 캠프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환경은 초록빛이 전혀 없는 척박한 사막이다. 나무나 풀 한 포기 없는 뜨거운 땅에서 구덩이를 파는 것은 아이들에게 극심한 신체적 노동을 요구하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물조차 자유롭게 마실 수 없다. 물 배급조차도 캠프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아이들은 이를 통해 더욱 철저히 통제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단순한 노동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까지 겪으며, 소장의 눈치를 보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다.

초록호수 캠프의 규칙과 환경은 명백히 공정하지 않다. 아이들은 노동 강요받으며, 보상은 소장의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캠프의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열악하고 불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물과 같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조차 제한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캠프는 권력이 불공정하게 행사되는 공간이며, 이를 통해 작 '의 부당성과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OYUL GANG

강소율

Grade7 KOREAN A

KANG SOYUL
TEAMWORK

소음 공해를 읽고

작품의 결말을 통한 현대 사회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 오정희, 소음공해를 읽고 -

소설 '소음공해'의 주인공인 '나'는 위층 여자에게 '발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로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을 전하기 위해 위층을 방문했다. '나'는 훨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를 본 순간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할 정도로 놀랐다. '나'는 장애인 시설에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며 뿌듯함을 느끼며 장애인의 심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깨닫는다. 정작 자신의 가까운 이웃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무관심에 부끄러워한다. 작가는 각한다.

오정희의 '소음공해' 읽고, 독자인 나는 현대인과 옛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해 보았다. 옛날 조선 시대에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나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를 즐기며 사랑방이라는 방을 쓰게 해주며 잠을 재워준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이웃이나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공동체를 위해주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다.

현대인들은 아파트의 건축 구조상을 엘리베이터로 자기만의 층을 누르면 바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아파트에 사는 다른 이웃 사람들과 함께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없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나'처럼 인터폰으로 간편하게 경비실에만 소통을 해서 서로 간의

불편함을 줄이려고만 한다. 제대로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므로 이 소설처럼 오해가 생긴다. 만약에 소설 속 윗집 여자가 이를 왔을 때 서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거나 서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했더라면 소설에서의 소음을 원한 갈등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웃의 관계가 긍정적인 배려의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한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 간의 좋은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현대인들은 아파트나 거주하는 곳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ing Han(한예성)
8 Korean A Class

HAN YE SUNG
8 INTEGRITY

아몬드속의 곤이의 성장

손원평『아몬드』 속 곤이의 성장 과정

손원평의 아몬드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더불어 윤재와 함께 등장하는 곤이 역시 중요한 성장의 과정을 겪는다. 곤이는 처음에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윤재에게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곤이가 단순하고 폭력적인 인물이 아니라, 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곤이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장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곤이는 처음 등장할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묘사된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분노와 폭력으로 표출하며, 윤재의 감정 없는 태도에 더욱 화를 내며 그를 괴롭힌다.

“너 진짜 이상한 애야. 너 같은 애 처음 봐.”(p.XX)

이 장면에서 곤이는 윤재의 감정 없음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느껴져 더욱 거칠게 반응한다. 그러나 곤이의 폭력성은 단순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생긴 행동임을 암시한다.

2부에서는 곤이가 윤재와의 관계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윤재에게 털어놓으며,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내면의 아픔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느끼는 것 같아?”(p.XX)

이 질문은 단순히 윤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으려니?’ 하는 법을 배우며,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익힌다. 결국, 윤재와의 우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아몬드가 단순히 윤재의 성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곤이의 내면적 성숙을 함께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곤이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윤재와 함께 성장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인 것이다

의 행동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3부에서 곤이는 윤재를 돋는 인물로 변모한다. 과거에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던 곤이가, 이제는 윤재를 도와주며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인다.

“너도 나처럼 힘들잖아.”(p.XX)

이 장면은 곤이가 윤재를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곤이의 성장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에서는 곤이가 윤재를 위해 칼에 찔리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 아보게 된다. 윤재가 자신을 구하려 한 것에 충격을 받은 곤이는, 로 진정한 관계에 대해 고민한다.

“은 놈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어?”(p.XX)

곤이가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며 진정한 우정을 깨닫는 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아가면서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려 한다.

“에는 폭력으로 자신을 통해 점차 다.”(p.XX)

MIN SUNG KIM
김민성
Grade9 KOREAN A

KIM MIN SUNG
9 COMMITMENT

멋진 신세계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은 필요한가?
-울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를 읽고

소설 속 인물인 존은 린다의 죽음으로 소마와 문명 사회의 통제된 삶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을 가지게 되며 멋진 신세계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한다. 존은 인류가 불행, 고통,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느낄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과 야만인들의 입장에서, 불행은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작가는 이것을 통해 불행, 고통, 불안 같은 감정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사회같이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한다. 결국 작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서 인간이 성장하며 이것으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다.

소설 속의 "멋진 신세계" 사회는 소마라는 마약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위적인 행복을 강요하며, 불행과 고통을 없애려 하는데, 존은 이러한 방식이 인간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고 비판하고, 이는 곧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저는 편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이 필요합니다. 시가 필요합니다. 현실의 위험이 필요합니다. 자유가 필요합니다. 선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악이 필요합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불행해질 권리, 즉 고통과 불행 등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한 감정들을 느끼고 경험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행해질 권리'는 존이 강조하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깊이 있는 감정과 존재의

의미를 상징하며, 작가는 이처럼 '멋진 신세계'를 통해 사회적 통제와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 Seungheon Park (박승현)
- Grade 10 Korean A Class

PARK SEUNGHEON
10 HUMILITY

열하일기 속 문화적 차이

열하일기를 통해 본 조선과 청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박지원의 인식 변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역시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그의 사상적 변화와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1780년, 박지원은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에 동행하며 청나라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조선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 구조를 경험했다. 그는 청나라의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를 목격하며 조선의 폐쇄적이고 고립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열하일기 속 청나라와 조선의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고, 그것이 박지원의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중심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경 지역에서부터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진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담장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거리에는 사람 타는 수레, 짐 실은 수레
가 왔다 갔다 한다. 길에 벌여 둔 그릇은 모두 그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네, 모양새에 시끌ти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 그만! 청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발전은 그들이 실용성과 개방성을 바탕하고 발전시키는 데에서 조선~

이처럼 청나라에서는 물통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으며, 이는 조선의 비효율적인 방법보다 훨씬 편리하고 실용적이었다. 박지원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서, 이러한 방식이 사회의 개방성과 실용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

년에서는 전통과 예법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따라 문화에서의 효율성이 따라온다. 그러나 조선은 성리학적 전통을 강조하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지원은 조선이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순간이

이 장면에서 박지원은 변방조차도 조선의 수도인 한 차례에 사설을 정체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였다. 변방에서도 조선과 청나라의 차이를 비교하여 조선의 한계를 자각하게 만든 계기였다. 변방에서도 청나라의 모습, 실용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사회 구조, 일상 속 작은 혁신들이 가져오는 효율성은 조선이 가진 폐쇄성과 비교되었다.

그는 조선이 단순히 청나라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하일기는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실학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박지원의 여행 경험은 단순한 문화적 감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중요한 사상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SEUNGHYEON LEE
이승현
Grade11 KOREAN A

LEE SEUNGHYEON
11 INTEGRITY

이태준 작품의 상징

이태준의 작품 속 드러나는 상징
-‘까마귀’와 ‘복덕방’을 중심으로-

이태준 작가의 까마귀와 복덕방은 사회적 변화와 인간적 갈등을 심도 있게 그린 작품이다. 두 작품은 상징적 요소와 인물의 행동을 통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성과 사회적 관계를 탐구하고 있으며 독자에게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까마귀는 도시화된 사회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겪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과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 초반에서 까마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까마귀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징적 장치로,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복덕방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인간 관계와 사회적 변화를 다룬다. 복덕방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장소로, 점차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데, 작품에서는 “복덕방은 더 이상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른 소외와 인간적 연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주인공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 실패하고, 이는 인간 관계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두 작품 모두 상징적 장치와 인물의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서술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까마귀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독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갈등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반면, 복덕방은 제3자 서술 방식을 통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간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작품은 상징적 요소를 통해 각각의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며, 인간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시킨다.

까마귀는 도덕적 갈등과 인간 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복덕방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과 인간 관계의 단절을 탐구하는데,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독자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인간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RO GUNMIN
12 TEAMWORK